

예수상탄대축일

제 1독서 : 이사 52, 7-10

제 2독서 : 히브 1, 1-6

특 음 : 요한 1, 1-18

순정이

“말씀이 곧 잡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 1, 9)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워 있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
 이 사랑이
 찾아들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갖추어질 때까지
 당신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부르리라.

크리스마스 얘기

육원태(토마스 이퀘나스)

국민학교에 다니던 50년대 초엔 전기불이 귀했다. 특선(特線)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특별한 곳에나 들어가던 것이었고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반딧불같은 일반선은 밤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가 그 다음엔 호롱불을 켜야하던 때였다.

분명히 12월 25일이었다. 어찌다 잠결에 눈이 떠졌는데 아버님이 앉아계신 머리맡에 백촉짜리 백열등이 찢어질 듯 환했고 집 밖에선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성탄절이었으므로 오랜만에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왔고 시내 변두리 교회의 찬양대가 대문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철이 들어서 어린시절의 성탄절은 내 앞에 그렇게 인식되었다. 환한 불빛이라든가 멀리서 들리는 찬송가라든가 하는 피상적인 것이었다. 늦게 늦게 천주교에 들어선 나로서는 늦깎이로 성탄절의 의미를 매년 매년 새로이 받아들이면서도 머리맡의 환한 불빛과 아버님의 모습이 오버랩(overlap)되어 떠나지 않는다.

7~8년 전 유럽 여행길에서다. 운수가 좋아선지 12월 24일 로마에 닿았고 교황청을 방문했다. 그날 저녁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을 찾아 나섰다. 명색이 가톨릭 신자이므로 세계 각국에서 찾아든 신자들에 끼어 미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앞섰으나 차편을 구할 길이 없었다. 친구들과 같이 호텔에서부터 택시를 타든가 아니면 걸기로 작정하고 길거리를 나섰으나 어두운 밤의 로마시내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거리가 벽적대고, 떠드는 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휘황한 네온으로 뒤범벅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택시는 고사하고 모두 어디로 숨었는지 온 시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우리는 걷고 걷다가 지쳐 돌아오고 말았다. 성스러운 이 날 교회에 가든가 아니면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경건함의 극치를 표현해 내는 그들의 생활태도를 알 리 없던 내 무식의 소치였다. 무섭도록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도 맞아 보았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휴일과 연관지어 진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스럽고 경건한 날을 어디가서도 찾을 수 없다. 일반인의 경우엔 여타 국경일과 다를 바 없으므로 힘겨운 생활 속에서 하루를 쉴 수 있게 해

준 그리스도께 그저 감사하며 지낼 뿐이다. 그러나 금년엔 금쪽 같은 휴일이 하필 일요일과 겹쳐 큰 낭패를 보았다고 투덜대기 쉽상이다.

성탄절이 12월 25일임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연말에 이 날이 정해졌음은 약간 야릇하다. 연말을 들뜬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성탄의 특수(特需)를 노리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든 예수님은 성자(聖者)이시다. 온갖 상품을 진열해 놓고 휘황한 네온사인으로 눈을 현란시키는 그들에게 성탄은 그 자체로 얼마나 고마운 기념일일 것인가.

1년 내내 성탄휴일에, 아니면 그 전날 밤에 한판 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하필 그들은 이 날을 기다려 복적거리고 떠들어 댈까. 한 해를 보내는 시점을 25일로 잡아 놓고 제야(除夜)까지 기다릴 것 없이 성탄 전야부터 환관 놀아 볼 심사에선가 아니면 1년 내내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 날 비로소 발산하는 것일까.

성탄에 이르르면 교회의 반짝이는 십자가는 무엇이며 밝게 빛나는 오색등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신 뜻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도 이 날만이라도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이 오고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이 사라지기를 빌어 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 예수님을 핑계대면서.



숲정이 산책



허진영(엘리사벳) · 형임순(오티리아) 씨

사람은 근본적으로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고,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이러한 우리네 인생길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함께할 때, 우리는 따뜻한 인간애와 정을 느낀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삶 안에서는 진정한 가치와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체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 구원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길, 나눔의 길을 묵묵히 실천하시는 허 엘리사벳(해성중 교사·39)과 형 오티리아(성심여중 교사·37) 선생님을 소개한다.

이들은 주말이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바람을 일으키며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자리잡은 진달래 마을로 향한다. 그곳은 무의탁 노인들과 장애자들 20여명이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부활 때 학생들이 만든 부활 달걀을 형 오티리아 씨가 그곳에 전달하면서부터다. 오티리아 씨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한 육신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단다. 그녀는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대모인 허 엘리사벳 씨와 의논하여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투신해 들어갔다. “우리는 잘 할 줄도 모르면서 안해 본 일 없이 다했어요. 밭일, 삼질, 도배, 빨래, 과일 따기 그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몸은 비록 힘들고 고단하지만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전에는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는 늘 허전하고 공허하기만 했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은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렵고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서로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두 선생님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그들을 도와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다.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일을 더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만 둘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그들은, 일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기다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는 할머니와 장애자 형제들은 늘 해맑은 미소로 맞아준다. 한가족처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다는 그들,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밭에 나가 들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웃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며 하느님께 대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놀랄기만 해요”라고 수줍게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제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다는 두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도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구원,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위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깊은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사랑을 살자.

'94년 성탄메시지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마태오 4,16)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태오 복음사가는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죽음처럼 캄캄한 세월을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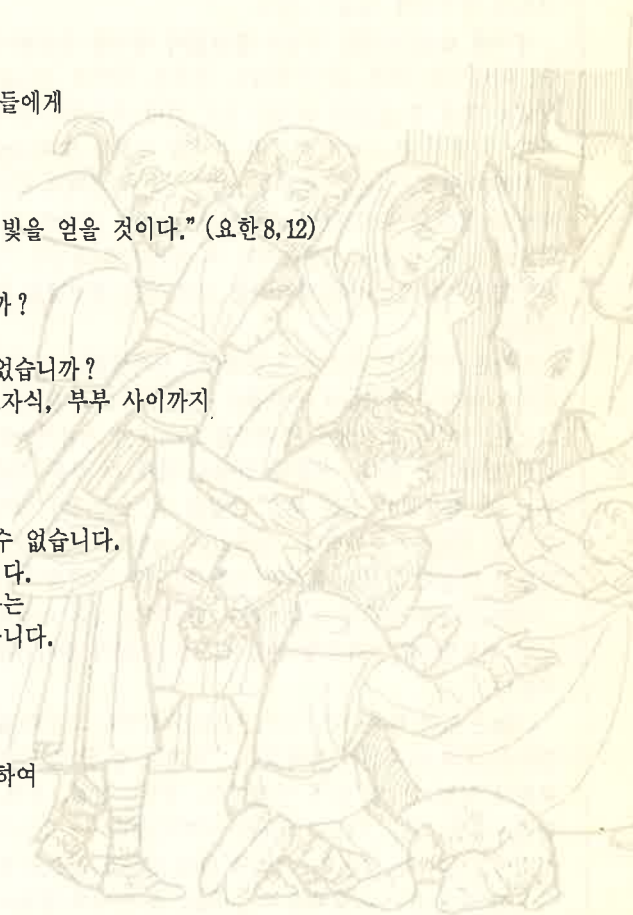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

벗이여,
우리는 과연 밝은 시대 환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 사이가 이처럼 미덥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한 번 쓰고 버리듯 하는 때가 또 있었습니까?
낯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친구, 일가, 친척, 부모자식, 부부 사이까지
이토록 쉽게 깨져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캄캄한 그믐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쳐오지 않으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에 질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그 그림자는 그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비쳐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꺼리고 없애버리려 합니다.
어둠 속에 지니고 있는 인간들은 자기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자는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내 가슴을 경외심으로 채우고
신비의 세계로 나를 빠져들게 하는 것,
그것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팔짝이는 양심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별빛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별빛만이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줍니다.



이 엠 학원

〈초·중·고〉
김 해 근(마티아)
동아아파트 앞, 육교 옆
☎61-0909, 466-0909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라종합학원

장 동 철(아오스딩)
김 은 숙(가리따스)
서신동 우신APT 입구
☎ 72-8415, 8465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응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호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오시는 주님



이병호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구장

그런데 도시의 휘황한 불빛은 별빛을 삼켜 버리고,
귀를 때리는 소음으로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누인 갓난아기는
왕궁의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한 양치기들이나 알아보고,
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반딧불일 뿐입니다.

생명의 빛은 언제나 희미한 반딧불이었습니다.
현란한 태양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 나라에 오시지만 그 백성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미치광이, 술주정꾼, 마귀두목,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로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위한다며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한낮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눈부신 해가 지고
시끄러운 하루의 삶이 지난 후
은 세상이 어둠과 고요 속에 잠기면
저 하늘의 별빛은 나타나고
가슴속 깊은 곳의 양심은 팔딱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한 밤
외딴 외양간으로 오십니다.

하느님은
한낮의 허세를 벗고,
알몸 자신으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숨결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몸을 돌려
저 멀리 나갑시다.
도시의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아니면 마음을 돌려 저 밑으로 내려갑시다.
거기서 우리 머리 위의 별빛과
우리 가슴속의 양심을
다시 찾아낼 때
우리는 반딧불로 오시는 하느님을 뵈을 것입니다.

요십이 (1113) 김병오



천호피정의 집 주방지원 구할

1. 지원자격 : 영세한 지 3년이상된 5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 ①이력서(사진부착) ②세례증명서 ③본당신부 추천서 각1통 3. 접수마감 : 1994. 12. 31(토) 4. 접수 및 문의 : 천호피정의 집(73-660)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삼재(베네딕도)
☎ 75-0550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 샴피랑 : 온몸,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 맑은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울렌,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일풍소)
☎ 88-7717~8

가톨릭 신문사 전주 지사

이관영(토 마)
김현자(말가뒀다)
가톨릭센터 3층 338호
☎ 85-1275(FAX겸용)

성소자 대피정

• 주제 : 예수님을 따르는 삶
• 때 : 95.1.6~8
• 곳 : 성바오로수도원
☎(02)986-1361
• 회비 : 만원
• 대상 :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미혼남자
• 준비물 : 성서, 필기도구, 세면도구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 12월25일 오후 2시
• 장소 : 삼량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 신구약 합본 성서

탁한 세상 정화는 오직 복음뿐

문치상(비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예언자가 여기 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 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혀지고 알려질 것이다.”(마태 24, 9-14)

분명 이 시대는, 더우기 1994년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는 아닐지라도 종말의 징조임에 분명한 것 같다.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비행기 속에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 속에서 불이 나고, 땅 속에서 폭발하고, 잠기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이탈하고, 충돌하는 따위의 갖가지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지 않은가.

거기다 세금도둑이 도처에서 의적인 양 활개치고 범이 무시되는 상식밖의 일들도 죄의식없이 자행됐다.

국권을 뒤엎은 반란죄는 역사의 심판이란 판결을 받고, 파실치상의 자동차 운전기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즉각 구속수감되는 세상이 되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살아난 듯 끔찍하고도 잔인한 현대의 살인마들도 오죽하면 사형이 억울하다 최후진술을 할 것인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인두검들이 내뿜는 말 속에는 뼈가 들어 있었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먹물을 끼얹었다.

분민시대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는 사라지리라 믿었던 국회의 날치기와 뒷북치는 야당의 수법은 오히려 옛날보



다 더 지능적이고 야비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은 왜 뽑았는지, 국회가 무엇하는 곳인지조차 망각시킨 1994년의 입법부 부재 현상은 국세를 축내도록 뽑아준 우리의 잘못이 크지 그들의 탓만으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기둥을 치면 서까래까지 움적여 묵은 때와 먼지가 다 떨어지리라 믿었지만 그 역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서까래가 썩은 줄은 모르고 계속 देख보와 기둥만 같이 치웠으니 그 집이 성할리 있겠는가?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먼지는 쌓여 다 함께 병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절대 권력을 쥐어 주고 절대 신임을 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

교회 안으로는 치명자산 성당 축성과 함께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리라”는 예수님 말씀따라 살다간 유행검 아우구스티노와 이순이 루갈다의 삶을 재조명하고서도 너무 가슴 아프고 쓰라린 사건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해였다.

아버지와 아들, 쉽게 응어리가 풀어지고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마음 조이며 기다리다 이 해를 마감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이제는 거두어 주소서.

불법과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불법이 성행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신자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올바른 복음전파만이 탁한 세상을 맑게 만드는 길이다.

원구의 모든 것
발육원구 · 학습원구 · 각종계임기류

아카데미 원구 **아이들 세상**

중앙국교 앞 군산역 앞
박한웅(요한) 김현자(수산나)

☎ (0654)446-1853 (0654) 43-4536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주장(이나시오)
차숙(글라라)

코아전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피아노 현금가 무이자 할부판매
삼익피아노 코아특약점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및 각종 악기

코아백화점 3층
☎ 86-1181,80-1309

교구 소식

❖교구청 휴무

• 때 : 12월26일(월) 성탄관계로
12월31일(토) 연말관계로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때 : 12월30일(금) 오후11시
• 장소 : 전동 성당
• 강사 : 이수현(보나벤투라) 신부

❖두메꽃 피정의 집 안내

• 장소 : 도미니꼬 관상 봉쇄수도원
(베른 성지 내)
• 규모 : 개인, 가족, 소그룹(20명 이내)
• 피자비 : 1박3식 - 30,000원
• 문의 : (0443) 45-7523
43-3408

❖축! 영명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박대덕, 정삼권 신부님
27일(성요한사도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이덕근,
김선태, 김희태, 권완성 신부님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때 : 95년 1월8일 오후2시
• 곳 : 성바로서원
• 문의 : (0652) 252-3398

❖동정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222-5269

❖서울성가소비녀회

• 때 : 수시로 성소상담
• 문의 : (0652) 223-3822

■권해드리는 책■

•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애버내티/박동호
예수의 가르침을 신약성서의 네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인간의 체험, 죄의 용서,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 등의 주요 주제를 다루면서 나아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해야 할 자세를 제시해 준다.

• 나의 혼인은 유효한가
프란치스코 베르시니/안규태
3,200원/성바로말
결혼!
이 영원한 약속이
과연 행복의 시작인가?
임매임의 시작인가?
혼인의 무효여부에 관한 교회적 지식을 실례로서 가르친다.

• 그래도 로마가 중요하다
요셉라칭거, 비토리오 메소리/정종휴
3,800원/성바로말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건
오늘의 얘기만이 아니다.
신앙의 현재 상황을 날카롭게 질문
하고 가톨릭 정통 노선에서 진단하는
화제의 대담집.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마시기가 두려운 물

이제 아무도 수도물을 믿지 못한다. 끓여서 먹는 것도 믿을 수 없어 생수를 사 먹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 올해 초, 낙동강 오염사태를 시작으로 수도물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물 오염 속도는 급격하게 빠르다. 늘어나는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에다가 정책의 부재까지 겹쳐 물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분뇨, 기름 유출 등 다양하다. 그 중 생활 하수의 발생량은 하루에 천만 톤 이

상이나 된다. 산업 폐수는 하루에 5백78만 톤이 발생하는데 산업 폐수의 경우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많아 물오염에 치명적이다.

수질 기준과 오염 정도를 두고 환경처와 전문가 간에 몇 차례 공방이 있었으나 여전히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려면 정부와 시민들의 장기적이고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물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길이 기억에 남을 마음의 선물로 이 한권의 책을 권해 드립니다
교환 요한 비오로 2세 수상록
"희망의 문턱을 넘어"
전 세계 39개국 동시 출간
시공사 전화 : (02)588-0831~4
문의자 : 영업과장 최기성

무지개 광고

간판,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 (0652)252-0207
FAX (0652)252-0208

뉴턴/종로회원 사원모집

교우가정의 학습지 주문도 접수합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주문서 사은품 증정)
• 문의처 회 사 : 88-8027~8
야 간 : 291-0279
호출기 : 012-686-5675
김금주(벨라도)

금·은·보석·시계

다 이 아 나

• 결혼예물 우대,계조직 환영
김윤중(베드로)
박명자(마리아)
서도프라자 1층 104호
☎ 222-3274~5

솔잎 농축액

• 피를 맑게, 고혈압, 악성클레스테롤 제거 · 기관지 천식, 노인성 치매에 효능 입증 · 「신비의 솔잎 치료법」책으로 출간(유태종 박사)(솔잎주도 판매합니다. 판매원 모집중)
이중화(방지거) · 기정님(파비올라)
☎ 225-0548, 221-0956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노기과
박승근(다미아노)
김종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예수 성탄 대축일
- ◎ 가정마다 성탄의 축복을 빕니다.
- 1. 사목회 정기총회: 오늘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
* 사목회, 고분, 감사, 각 분과 부장, 차장, 제단체장, 반회장
님께서는 필히 참석바람
- 2. 초등부 교리교사 정기총회: 27일 후 8시
- 3. 중·고 교리교사 정기총회: 30일 저녁미사 후
- 4. 송년미사: 31일 후 8시(저녁 7시미사는 없음)
- 5. 모임: ①꾸리아(오늘 후 2시)
* 천사의 모후 꾸리아도 후 2시에 있습니다.
②제대회(27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9일 전 10시30분)
- 6.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금년도 교부금 완납과 내년도
교부금 수입에 협조바랍니다.
- 7. 다음주(1일)은 교부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 8. 금주 청소: 기린봉 3반, 중노 13반
차주 청소: 중노 15, 16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축! 성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 예수
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1. 성탄절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95년도 교부금을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1. 축! 성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 행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95년도 교부금 신입을 못하신 분은 31일까지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송년 감사 기도회: 31일(토) 저녁 11시~12시
- 4. 다음주일(1월1일)은 세계 평화의 날
- 5. 복자 M.E가족 송년 나눔모임: 30일(금) 오후 6시
- 6. 사목회: 1월1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7. 유아세례: 31일(토) 오후 6시30분
- 8. 성당 청소: 31일(토) 천사의 모후Pr. 사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황반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김응식 가족
차주 전례: 해설-장승훈.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안명수 가족
- 지난주 교부금: 1,211,200원 □ 감사헌금: 10,000원
- *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웃으시며, 여러분을 귀엽게 보이주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민수기 6, 24-26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경 예수 성탄 대축일 축
- 1. 금주: ①축! 성탄 영세-공식미사중
(미사 후 총연관에서 축하식)
②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2. 사목회 정기총회: 12월30일(금) 오후 7시
-사목회 전위원, 고분, 구역반장, 제단체 임원 참석바람
- 3. 송년의 밤 미사: 31일(토) 밤 11시
- 4. 본당 나자렛 부녀회 창립: 12월 20일
회장-백순동(테레사) 부회장-한영자(수산나)
총무-최경환(첼마) 서기-고은희(아네스)
- 5. 차주: ①평화의 날 대축일(미사 참석 의무)
②울트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 6. 에루살렘회 발족 예정: 12월 27일 오후 2시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축! 예수 성탄 대축일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 ◎ 축! 영세: 21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울트레아-29일(목) 저녁
③주일학교 은총시장-공식미사 후
- 2. 다음주일은 교부금 및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
'95년도 교부금 신입하세요.
- 3. 성탄 꽃 봉헌: 안나회, 오철규 각 3만. 김월주, 김영례, 김만순-
각 2만. 안복예, 정찬수, 익명-1만. 강베로니카-5천
- 4. 감사: 성탄절 행사에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 5.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총 친목회: 26일(월) 저녁미사 후
- 6. 꾸르실로 남성 49차 교육: 1월5일~8일 황상호, 정한모
- 7. 꾸르실로 여성 48차 교육: 1월12일~15일 김미남, 주영혜
- 8. 신정미사(천주의 모친이신 성마리아 대축일): 다음주일-의부
대축일
- 9. 금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10. 차주 청소: 사랑하움 어머니
- 11.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이석남
 봉헌-박귀철씨 부부
- 12. 차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남현준씨 부부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장삼근

-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 청소년 성탄예배: 오늘 저녁 8시30분, 부모님들의 관심음.
- 2.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총 친목회: 26일 저녁 7시 Pr. 별로 장기자랑
및 연극을 5분 미만으로 준비하여 발표바랍니다.
- 3. 성가대 송년회: 27일 11시 십자 뿔기(마니또) 선물 교환
- 4. 제단체장 및 대표 연석회의: 27일 저녁미사 후
- 5. 혼배 조당자 관련성사: 30일 저녁 7시, 면담-27일 저녁 7시.
호적등본 1통, 세례증명서 1통
- 6. 송년미사: 31일 밤 9시 계층별 준비
- 7. 회의: 울트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봉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28일 어머니미사 후
- 8. 자선의 날: 28일 전 11시-어머니미사,
 후 7시30분-아버지미사
- 9. 축복미사: 29일 전 11시 코오롱 8동 1601호 김 루비사나 님
- 10. 전입을 환영합니다: 한영이(아나다시아) 평화주공APT 205/13
04, 김선호(스테파노) 예그린APT 가/302 ☎82-5156, 코오롱
APT 여운순(세시리아) 4/802 ☎223-9917, 홍성범(바오로) 6/
1506 ☎225-3465, 김소영(아그네스) 3/903 ☎222-7554, 김
순자(루비사나) 8/1601 ☎225-5982, 국경회(마리아) 4/103 ☎
225-5056
* 물품대금 결산: 냉동식품, 양복, 나나스끼 등등